

비트를 타는 순간, 나는 진짜 나다

내 삶에 들어온 '랩'이라는 취미에 대하여

글. 한호정 YTN 미디어제작본부 제작기술국 IT시스템팀

사람마다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다.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는 글을 쓰고, 누군가는 몸을 움직여 춤을 춘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 방식이 바로 '랩(Rap)'이었다. 마이크를 손에 쥐고, 비트 위에 한 문장씩 내 이야기를 풀어내는 순간, 내 감정과 생각이 리듬을 타고 흘러나간다. 나의 말, 나의 숨결, 나의 감정이 음악이 되는 경험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희열을 안겨준다. 그럴 때면 나는 마치 세상과 하나가 된 것처럼 느낀다.

누군가에게는 랩이 공격적인 음악처럼 느껴질 수 있다. 빠르고 날카로운 리듬, 강한 어휘, 직설적인 표현들이 그렇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랩은 누구보다 깊은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하는 도구다. 어떤 이는 랩을 통해 분노를, 어떤 이는 사랑을, 또 다른 이는 삶의 고통과 회복을 이야기한다. 나에게도 랩은 그런 도구였다. 내 속에만 맴돌던 생각들을 끄집어내어 세상에 꺼내놓을 수 있는 출구.

랩은 단순히 빠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비트 위에 자기만의 언어로 세상을 해석하고, 감정을 녹여내는 예술이다. 1970년대 뉴욕의 거리에서 시작된 이 문화는, 당시 억압받고 차별받던 흑인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지금은 그 문화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표현 방식으로 자리 잡았고, 장르의 경계도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개인적이고 내밀한 고백이 되기도 한다. 랩은 이제 음악을 넘어 하나의 언어이고 문화이며, 동시에 해방이다.

나를 무대 위로 이끈 것들

나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고, 특별히 공연을 하겠다는 꿈을 가진 적도 없었다. 오히려 무대처럼 많은 이들의 시선이 모이는 공간은 피하고 싶은 장소였다. 그런 내가 '랩'을 시작하게 된 것은,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저렇게 감정을 쏟아내는 게 과연 어떤 느낌일까?'라는 물음에서 시작된

관심은 곧 ‘나도 해볼 수 있을까?’라는 도전으로 이어졌다.

‘쇼미더머니’ 같은 방송 프로그램은 그 시발점이었다. TV 속 참가자들이 털어놓는 자신의 이야기를 보며 문득 ‘나도 저런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머릿속으로 가사를 상상만 했고, 휴대폰 메모장에 단어를 끄적이기도 했다. 그러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첫 녹음을 시도해 봤다. 이어폰 마이크 목소리를 녹음하고, 무료 비트에 맞춰 처음 써본 가사를 엮어봤다. 결과물은 어색하고 엉성했지만, 그 순간의 두근거림만큼은 진짜였다.

☀ 나의 첫 번째 랩 - 〈special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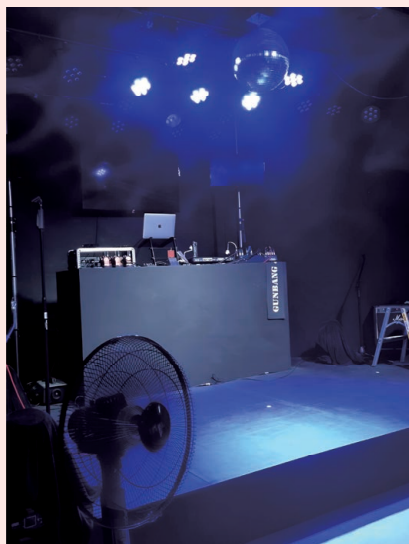
내가 처음으로 완성한 자작곡은 〈special day〉라는 곡이다. 이별을 주제로 한 곡으로, 그 시절 내가 겪었던 사랑의 감정과 상실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았다. 랩이라고 하면 거친 어휘와 센 표현을 떠올리지만, 나는 내 일상에서 우러난 감정들을 담고 싶었다. 그래서 가사는 매우 구체적이다. 어느 날의 점심, 함께 걷던 거리, 익숙한 지하철 출구. 모두 우리의 기억이자 이별의 증거였다.

“점심에는 아웃백, 내가 먹던 폭립
너의 최애 메뉴는 투움바 파스타, 내가 다 기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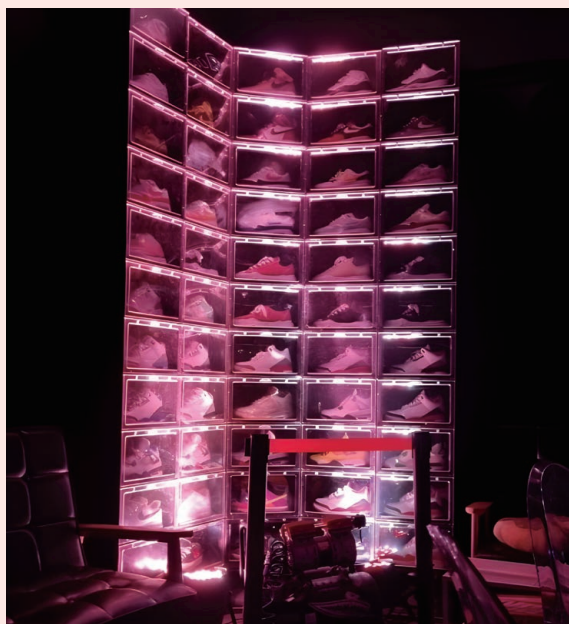
“사당역 4번 출구, 우리 사랑의 마지막
빌어먹을 사당역, 오케이 굿바이”

이 곡을 쓰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감정과 싸우는 일이었다. 가사를 쓰다 보면 그때의 장면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다. 쓰고, 읊고, 녹음하는 모든 순간이 감정을 정리하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special day〉는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니라, 내 인생의 한 시절을 기록한 작은 다큐멘터리였다. 곡을 완성하고 나니, 비로소 그 관계에도 작별을 고할 수 있었다. 가사 속 “오케이 굿바이, it’s so special day”는 그 이별이 특별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 내가 더 단단해졌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스튜디오 내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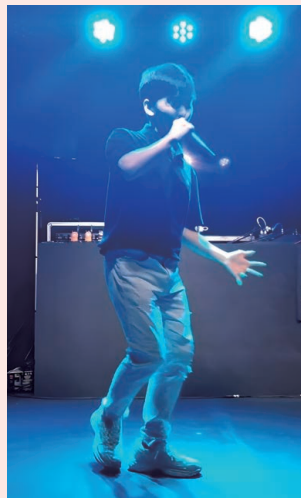
스튜디오 벽면의 인테리어



공연 당일 조명



공연 연습



랩은 내 감정의 작업실이다

그 이후로 나는 꾸준히 가사를 써 내려갔다. 감정이 벅찬 날이면 자연스럽게 노트를 열었고, 문장을 적기 시작했다. 평소 말로는 꺼내기 힘든 이야기들도, 비트 위에서는 의외로 쉽게 나왔다. 랩은 내게 새로운 언어였고, 감정의 작업실이었다.

가사를 쓰는 과정은 마치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이다. 그날의 감정, 오래된 기억, 잊은 줄 알았던 감정의 흔적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그것을 단어로 붙잡아 리듬에 엮는 순간, 말보다 더 정확한 나의 표현이 탄생한다. 누군가는 일기를 쓰고, 누군가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 나는 랩으로 나를 기록했다.

두 번째 이야기 - <기대>

그다음으로 완성한 곡은 <기대>였다. 이번에는 이별이 아닌 '위로'가 주제였다. 매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거나 등교하는 수많은 사람들, 버스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이들, 말없이 하루를 건디는 친구들을 보며 이 곡을 쓰게 되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 지하철 앉아 졸고 있는
오늘도 가만히 고갤 숙이는 / 너 잠시 내 어깨에 기대"

가사 속 '너'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사람이다. 내가 힘들었던 날, 누군가의 한마디에 위로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내가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다.

"내리는 비는 막을 순 없지만 / 옆에서 우산을 들고 있어
받는 상처는 막을 순 없지만 / 옆에 악을 들고 있어"



공연 연습



공연 리허설 상황

이 곡은 쓰는 내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어 쓰기 시작했지만, 결국은 나 스스로에게도 꼭 필요한 말이었다. 나도 그 어깨가 필요했고, 누군가에게 우산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은 곧 내가 우산을 원했던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랩, 기술과 감성 사이

랩을 만들면서 느끼는 또 하나의 재미는, 기술과 감성이 교차하는 그 지점이다. 단순히 가사만 쓰는 것이 아니라, 녹음과 편집, 믹싱까지 하나하나 직접 배워가며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작은 방송 제작처럼 느껴졌다. 노이즈를 제거하고, 목소리에 맞는 리버브를 넣고, EQ를 조절하는 일련의 과정은 처음엔 어렵고 낯설었지만, 곡이 점점 더 ‘듣기 좋은 음악’이 되어가는 걸 보며 큰 만족감을 느꼈다. 감성을 담되 기술적으로 전달되는 방식도 고려해야 했기에, 마치 감성과 기술이 균형을 이루는 무대 위에서 나는 나만의 방송을 만들고 있었다.

비트 위에 남기는 나의 흔적들

지금도 나는 종종 내가 만든 곡들을 다시 들으며 지난 나를 떠올린다. 때로는 유치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때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며 미소 짓기도 한다. 하지만 그 모든 가사와 곡들이 결국은 내 삶의 일부이고, 진짜 나를 보여주는 조각들이다.

누군가는 내 음악을 듣지 않아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그 순간의 나에게 가장 솔직했는가’이다. 나의 랩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음악이기 전에, 나 스스로에게 들려주기 위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점에서, 이 랩들은 모두 완성된 작품이다.

My traces on the b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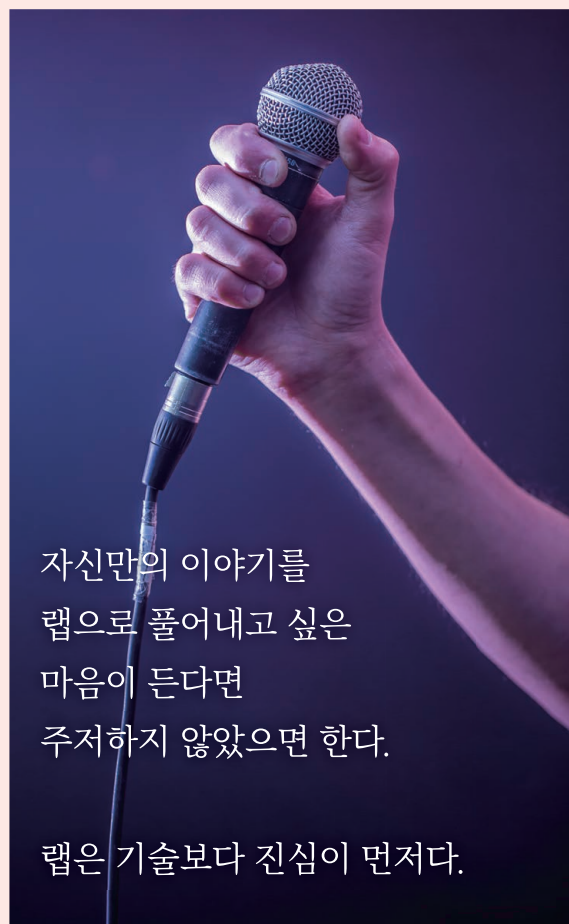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

혹시 이 글을 읽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랩으로 풀어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주저하지 않았으면 한다. 랩은 기술보다 진심이 먼저다. 음악 장르로서의 랩보다, 표현 방식으로서의 랩을 먼저 떠올려보자. 거창한 장비도, 특별한 목소리도 필요 없다. 단 한 줄의 진심이면 충분하다.

비트 위에 당신의 목소리를 얹어보라.
감정이 흐르고, 이야기가 생기고, 결국 당신만의
음악이 만들어질 것이다. 누구보다 당신에게 닿을
이야기, 그것이 가장 강력한 음악이다.

랩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이고, 그것은 진짜 당신이다.

비트를 타는 순간,
당신도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랩으로 풀어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주저하지 않았으면 한다.

랩은 기술보다 진심이 먼저다.